주간 KTTU
Weekly KTTU

<제74호>
2005년 3월 21일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www.kttu.or.kr

발행·편집: KT노동조합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화: 031-727-4820~4855 팩스: 02-750-5404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집중투표제 실시로 413만여표 획득
현대증권노동조합과의 연대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 개척

11일 KT의 23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회사는 11일 10:00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23기 재무제표, 정관변경,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주총에서 KT노동조합은 작년에 이어 주주제안과 집중투표 청구를 통해 동일한 사외이사후보(중앙대 이병훈 교수)를 추천했으나, 집중투표 결과 투표에 참가한 1억3천903만7천997주중에서 413만8천667표를 획득하여 선임에 충분한 표는 얻지 못했다.

이사선임의 건에서는 사외이사에 솔로몬(메트라이프 생명 대표) 이사가 연임됐으며, 세이에셋코리아 자산운용㈜ 곽태선 사장이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또 상임이사에는 서정수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차완규 정책1국장은 "현재 KT가 시행하는 주식 고배당율 정책은 단기적인 주가부양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양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장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서는 KT의 미래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 투자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경 사장은 올해 투자 계획을 밝히며 매출액의 20%라는 적지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주주들을 위해 금년에도 중간배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수 정책실장은 주주제안 설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경영참여를 통해 KT가 좀더 유익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허진 교육선전실장은 경쟁회사 사장으로 넘어간 한 사외이사의 도덕성을 질타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감시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위임 연대활동을 지원해준 민경윤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은 "KT에 수탁자의 동의없이 의결권을 위임한 투신사의 운영방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며 법적효

력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가 발생할 시 KT에 대한 공신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KT지분이 영업보고서와 신탁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비록 사외이사를 진출시키지는 못했지만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실현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현대증권노동조합과의 연대는 향후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있어 노동운동세력의 공동투쟁과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4월에 있을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와 더불어 사외이사추천권 부여 및 조합원의 의결권 집중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법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6일 하계피복 최종 품평회 개최

3차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하계피복은 6월부터 착용

노동조합과 회사는 하계피복 선정을 위한 최종 품평회를 16일 본사1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3개 복종(작업복, 근무복, 여직원복)별로 각 1점씩의 하계피복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품평회에는 지재식 위원장과 이용경 사장을 비롯한 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들이 참석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견본품 전국 순회 전시 및 Cyber 여론수렴 결과 데이터를 중점으로 복제에 대한 품평이 진행되었다.

금년도 하계복제개선 방향은 민영화된 KT의 기업이미지가 피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표출되도록 하고 최첨단 원단과 세련된 디자인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주요 특징으로는 작업복을 근무복(고객접점요원)과 작업복(현장요원)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시험실 등 내근자에게는 내근 작업복을 지급하고, 지사 및 지점의 고객창구(1,2선)근무여직원에게는 창구 여직원복을, 각 실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는 여직원용 작업복으로 지급 복종이 변경되는 것이다.

3차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하계피복은 6월부터 착용토록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하계피복 3점에 대해 KT이미지 재고와 여론수렴 결과에 따른 일부 디자인 및 색상 수정 후 선정된 피복에 대한 제품사진을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피복선정을 위해 전국 순회전시와 Cyber 여론수렴 등에 참여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복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5.3.31기준)

▌접수기간 : 2005. 3. 21 ~ 3. 29 (9일간)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소속 기관장에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 의견서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 추천

- 각급 임용권자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

- 각급 임용권자단위 퇴직 발령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2005년 KT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2005년 KT산업안전보건대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지리산수련관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회사에서 발표한 2004년도 산업안전 성과자료에 의하면 총 86명(전년도 58명)의 산재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 8명(전년도 4명), 부상자가 78명(전년도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산재자수 ↑48.3%, 사망자 ↑100%, 부상자 ↑48.3% 증가라는 엄청난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발생하였다. 전체 재해율 또한 0.226%로 전년대비 69.9%가 증가하였다.

이번 산업안전 세미나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및 직무 명예감독관의 직무, 안전실무자의 활동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며, 이밖에 노동조합과 회사 임원 및 안전, 보건담당자(352명)들이 참석하는 무재해기원 등반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2005년도 재해감소를 위해 다각도의 안전,보건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고취와 함께 재해관리시스템 정비속에 안전장구류와 차량까지 전체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故김왕찬 동지 제9주기 추모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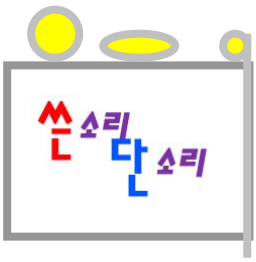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노동자의 아픔을 껴안으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던 故김왕찬 동지의 9주기 추모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던 영원한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3월 20일(일) 10 :00

■ 장 소 : 제주도 북제주군 저지리 가족공동묘지

☞ KT노동조합 제주지방본부 위원장 고 홍 관

(연락처 : 064-751-7600-1, 010-6789-5555)



내가바라는 전국대의원대회

[출처 : 노동조합 게시판 2005-03-18]

다음주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리산 수련관에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지난날의 대의원대회를 돌이켜보면 한때는 생산적인 대의원대회라기보다 상대방을 성토하고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켜가며 고함과 삿대질이 오가는 노동조합내 파벌싸움의 장이기도 했던 부끄러운 행사였음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이제 KT노동조합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월속에 성숙의 단계를 넘어 완숙해졌음을 누구나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국의 조합원이 대의원대회를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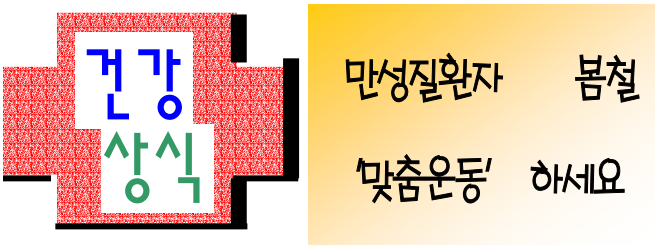
의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의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어야 할것이며 대의원의 질문과 의견이 내생각과는 다르다고 야유를 보내는 일은 더군다나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의원대회는 현장의 조합원의 정서나 의견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대의원과 의장에게 꾸밈없이 전달하고 토론후 의결하여 조합원을 위한 좋은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실질적 혜택이 주워지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시장이 날이 갈수록 힘들고 세상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며 근로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더욱 힘을 발휘해 거친 호흡을 더해가는 회사와 조합원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보듬어주는 역활을 이번 대의원대회에 기대해 보겠다.



[출처 : 서울신문 2005-03-17]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는 운동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평소 생활습관병(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 적절한 처방을 받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질환자들을 위한 운동법을 살펴 보자.

●당뇨병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운동은 당의 에너지화를 촉진시키고 비만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줘 매우 유익하다.

적합한 운동은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타기 같은 유산소운동. 이런 운동을 1회에 30~50분 정도, 일주일에 5회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망막 이상, 고혈압, 심장질환 등 합병증이 있다면 호흡불균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또 운동 전후에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야 하며, 운동 전에 인슐린을 투여할 때는 용량을 조금 줄여 비교적 근육 수축이 활발하지 않은 복부에 주사해야 안전하다. 운동 중 심부전과 부정맥,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 식은 땀과 함께 흉통, 손발 떨림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꿀물, 주스를 섭취해 혈당을 안정시켜야 한다.

●간 질환 간 질환자 중에는 피로가 쌓인다며 운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벼운 운동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간기능 혈액검사치인 CPT가 100IU/ℓ로 떨어진 이후에 운동을 해야 하며, 지방간 급성기에는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 적합한 운동은 실내 자전거타기와 러닝머신. 또 이른 아침에 야산을 오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운동은 일주일에 5일, 회당 30~50분 정도가 적당하다.

간기능이 크게 떨어졌거나 급성 간염환자는 가벼운 운동 후에도 피로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경우 운동 후 1시간이 지나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운동 시간과 강도를 낮춰야 한다.

●고지혈증 고지혈증을 개선하려면 일주일에 3~5회, 약간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강도로 빨리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야산 오르기와 같은 운동을 하면 좋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성지방이 문제인 경우 4개월 정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1년 정도 운동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운동과 함께 저지방식 식이요법을 준수해야 효과적이다.

●신장질환 신장질환자는 운동과 약물 및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며, 미리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동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장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dℓ 이상이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무리한 운동을 하면 몸에서 과도한 수분이 빠져 나가 심장과 폐에 무리를 주게 된다.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실내 자전거타기, 수영처럼 큰 근육을 리듬있게 움직이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신장투석 환자는 투석을 받지 않는 날을 골라 하되 일주일에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 운동후 1시간이 지나도록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운동량을 줄여야 한다.

●고혈압 고혈압 환자에게는 조깅, 수영, 달리기 같은 심폐지구력 운동이 좋다. 통상 이런 운동을 하고 나면 수축기 혈압이 운동 전보다 낮아져 보통 2~4시간, 사람에 따라 이틀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4일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압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 단, 물구나무서기와 같이 머리를 가슴 아래로 내리는 동작은 안압·뇌압을 증가 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해야 하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 운동 전 혈압이 평소와 다르면 의사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운동을 해야 한다.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폐기종, 결핵 등 호흡기질환자는 폐활량이 보통 일반인의 70%에도 못미치므로 지속적인 운동보다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타기 등을 '5분 운동, 1분 휴식' 형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후 운동능력이 향상되면 '10분 운동, 2분 휴식' 식으로 운동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 때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운동유발성 천식환자는 대기가 차가울 때의 운동을 피해야 한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인천 소래포구

[출처 : http://travel.waw.co.kr]

낭만의 협궤 열차가 다닐 때도 명소였던 소래포구가 지금도 바다의 맛을 즐기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그 이름을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래 포구 입구에서 농로를 따라 1.3㎞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양생태공원은 아직도 염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래포구로 들어오는 좁은 길이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는 풍림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나 있는 농로를 따라 걸으면 해양생태공원에 들를 수 있다. 바다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해양생태공원에서는 소금채취과정으로 학생들이 직접 가래질을 하며 소금을 긁어모으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 개흙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

해양생태공원은 총 넓이는 약 350만 ㎡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폐염전을 중심으로 66만 ㎡가 1999년 6월 개장되었다. 이 공원에는 생태전시관과 자연학습장·염전학습장·갯벌체험장·담수연못·조류관측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차장과 화장실·매점·벤치·파고라 등의 편의시설, 팔각정으로 된 휴게시설도 갖추었다. 공원 입구에서 생태학습장으로 가는 길에는 보리밭이 있고 유채꽃과 갈대가 자라고 있으며, 군데군데 소금창고와 폐염전이 남아 있다.

생태전시관은 염전창고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벌노랑이·해당화 등 염생식물의 사진과 소금작업 광경, 소래포구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 근처에 마련된 자연학습장에서는 생태공원의 식생과 염전에 관한 영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염전학습장에서는 하루 400-1,200kg 의 소금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염전학습장 곁에는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게와 조개 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찰할 수 있는 갯

벌체험장도 마련되어 있다. 또 근처에는 붕어와 잉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담수연못도 있다.

소래에는 추젓, 육젓, 꼴뚜기 젓 등 다양하고 싱싱한 젓갈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으며, 김장철에는 생새우 판이다. 또한 노점 횟집들이 100여 곳 자리잡고 있어 즉석에서 회를 떠주는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마을 축제라도 열린 것 같은 소래포구는 10m는 됨직한 제법 넓은 폭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40여 곳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면 막다른 길이 수협공판장이다. 어민들이 갓 잡아 온 생선을 상인들에게 공매로 넘기는 곳이다. 하루 두어 차례 배가 들어올 때마다 공매인들과 상인들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때를 잘 맞추 면 특이한 목소리와 표정이 난무하는 진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공판장 바로 오른쪽 수협직매장 옆으로 난 통로가 포구로 통하는 길이다. 이곳에 서면 세 갈래 길이 보인다. 포구 쪽은 즉석에서 떠온 회를 먹는 노천식당으로 변한다. 가장 오른쪽 골목이 젓갈을 파는 곳이다.

첫 집부터 산봉우리처럼 수북하게 쌓아놓은 새우젓이 백열등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 추 젓, 육젓, 꼴뚜기젓 등 갖은 젓갈도 커다란 드럼통에 푸짐하게 놓여 있다.

젓갈만 파는 집이 이 골목 안에 모두 80여 곳. 김장철이면 생새우 판이다. 가운데 골목에는 노점횟집들이 100여 곳 자리잡고 있다.

유명한 소래철교를 건너보려면 가장 왼쪽 길을 선택해 중간쯤 가다 오른쪽으로 있는 철교 아래골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전엔 '꼬마열차'란 애칭으로 불리던 협궤열차가 다니던 수인선이었지만 지금은 철교를 한번 건너보려는 연인들이나 시흥시 월곶으로 가는 사람들만 이용한다. 소래의 성수기는 6월, 9월, 11월이다. 이때도 물때를 잘 맞춰야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다. 매월 음력 보름 3일 전부터 3일 후까지, 그믐 3일 전부 터 3일 후까지가 적당하다.

문의처(지역번호 032)

인천시청 관광진흥과 : 427-0095 http://visit.inpia.net/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공보실 : 453-2103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 884-4590

해양생태공원 : 453-2962

소문난 맛집(지역번호 032)

송원식당(인천 남구, 한식, 432-6948) 해월토장집(남동구 구월4동, 토속한식, 467-6221) 아람공원(남동구 논현동, 한식, 466-5030) 간석회관(남동구 간석1동, 한식, 428-3356) 수림공원가든(남동구 간석4동, 한식, 424-4444)

하룻밤 쉴만한 곳 (지역번호 032)

수봉관광호텔(남구 도화동, 868-6611) 뉴스타모텔(남동구 간석3동, 435-9982) 유토피아(남동구 간석동, 434-4351) 에머랄드모텔(남동구 간석동, 433-6660) 아비숑(남동구 구월동, 431-3330)

교통 정보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남동IC를 나온 후 남동공단 방향으로 1㎞ 정도 달리면 만나게 되는 4거리에서 좌회전, 700m 가량 더 달리면 도림초등학교에 닿는다.

□ 이곳에서 우회전해 2차선 좁은 1.2㎞ 달리면 소래포구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이른다.

□ 소래포구는 막다른 길이므로 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1.5㎞ 더 가면 소래어시장에 도착하게 된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